

‘청년붐다’운동... 대불련 포교 대안



7월 5일 월정사 대웅전에서 열린 연화제 50주년 추모법회.



추모행사가 끝난 뒤 참석자들이 제2의 대학생 포교 불사를 외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화제와 대학불교운동’ 주제 세미나

고려대불교학회가 50주기 연화제서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향후 50년을 도모했다. 연화제를 더 이상 고려대만의 추모행사가 아닌 선배들의 구도정신을 있는 자리로 발전기 위한 초석이다. 고려대불교학 생회(이하 고불회)와 고려대불교학회교우회(이하 고불회교우회)는 7월 5일 월정사 대적광전서 연화제를 올리고 연화제 관련 학술세미나, 월정사와 MOU 체결, 연화탑 참배 등을 거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 불회 및 고불회교우회 회원, 유가족 대표단,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등 1백여 명이 참석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고인들의 원력지심을 이어받아 후배 불자들이 고불회와 대불련이 구도 열 정을 꽃피울 것”을 당부했다. 법륜전으로 이동해 진행한 연화제 관련 학술세미나는 고려대 조성택 교수와 동국대 김광식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다음은 세미나를 요약정리 했다.

월정사=박아름 기자



조성택 교수
‘사람이 부처다:
우리 시대 불타관’

부처님이 33세에 성도하셨을 때 부처님 제자들도 역시 대다수가 20대입니다. 부처님 첫 제자 중에는 부처님보다 한두 살 많은 분도 계셨습니다. 대부분 2~30대가 주류였습니다. 그 젊은 세대가 당시 사회를 전적으로 변혁시켰습니다. 세상을 바꿔놓았습니다. 불교를 전통종교라고 하는데 전통종교 맞습니다. 오래된 종교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불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성격 자체는 대단히 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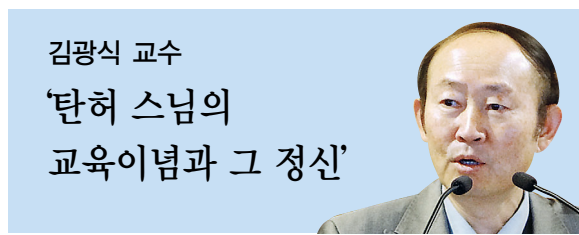
오늘 연화제에서 ‘성지화’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성지화의 진정한 의미엔 우리 기억을 과거 50년 전에 고착화시키는 게 아니라 희생된 10명의 구도정신을 새롭게 부

활시키는 것입니다. 새로운 회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청년붐다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처럼 10명의 선배님들은 20대였습니다. 그 분들의 젊은 날의 뜻을 이어받아 청년붐다운동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한국 불교를 중흥시키고자 함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종립 문제입니다. 우리 문명사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탈피하기 위한 우리의 시대적 역할입니다. 이 한국 사회를 계도하기 위해서라도 불교를 더 젊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 출발점을 오늘 이 자리를 있게 한 열 분의 선배님들의 유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존재가 ‘본래 부처’라고 하는 것은 석가세존께서 통찰하신바 존재의 실상이며 이는 곧 불교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자기정체성입니다. 이는 곧 수행의 출발점입니다.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것은 스스로 본래부처라는 자각에서 비로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본래부처는 불교인의 자기정체성으로서 관념의 세계가 아니라 실천수행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요컨대 본래 부처란 부처가 나의 실상임을 자각하고 지금부터 부처로 살아가고자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본성(因佛性)의 발보리심을 실천하는 가운데 석가세존의 원만국과의 깨달음을 체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보리심은 진리의 마음을 내놓는 것입니다. 본래 부처님은 여기서 더 나아가 자신의 불성이 미래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온전하게 갖추어진 현실로 자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것은 ‘내가 부처’라는 자각에서 비로소 현실이 됩니다. 다시 말해 ‘본래 부처’는 스스로가 자유로움 주체적이며 거룩한 존재인 것을 자각하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당장 여기에서 부처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현실에 대한 불교의 책임을 자임하는 일입니다.

제가 청년붐다운동을 제안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처해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불교인들의 책임의식 그리고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의 진흥에서의 차원이 아니라 불교인들의 역사적 책임의식이 청년붐다운동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더욱더 젊어져야 하며, 그 젊은 불교가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세계로 바꾸는 데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식 교수
‘탄허 스님의
교육이념과 그 정신’

대불련은 1963년에 출범되었습니다. 이 50년의 역사를 통시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시대 상황에 따라 말씀드리자면 I. 1963년~1972년, II. 1972년~1980년, III. 1981년~1994년 IV. 1994~현재로 나누어볼 수 있겠습니다.

17(1963~1972년) 시대에는 오늘 주제인 연화제 주역인물과 직접적인 관련 시기입니다. 50년 전에는 대학생들이 열렬한 신심으로 수행을 동반했습니다. 그것을 바로 구도자(求道者), 구도계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학생들은 학교에서 불교를 연구하고 또 수행하고, 스님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27(1972~1980년)는 대학생들이 신앙과 구도에 개념에서 이탈이 되면서 민족이 우선됩니다. 당시 대불련은 70년대 민중과 민족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민해를 연구하는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12년에 걸친 3기(1982~1994년)는 완전히 민중불교가 고착화되어 요즘말로 ‘운동권불교’가 됐습니다.

4기는 94년도에 조계종단 대변화로 내부 분열이 일어났던 때부터 출발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탄허 스님의 교육 이념과 정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탄허 교육의 특징은 단순한 지식, 종교적 진리만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탄허 스님에 있어서 구도는 인간의 삶의 근원을 묻고, 그 방향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참다운 생활의 지표를 찾는 것이지요. 또한 탄허는 구도를 전문 수도자들만이 행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의 사람들도 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탄허 스님은 종교를 세계관과 우주관의 분질인으로서 도덕을 실천하게 하는 것, 인간 생활의 근원 및 지침, 실천이 수반된 인격완성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종교를 통해 인간과 사회를 도덕적으로 정화하는 교육의 핵심 방편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법일기

‘아쁠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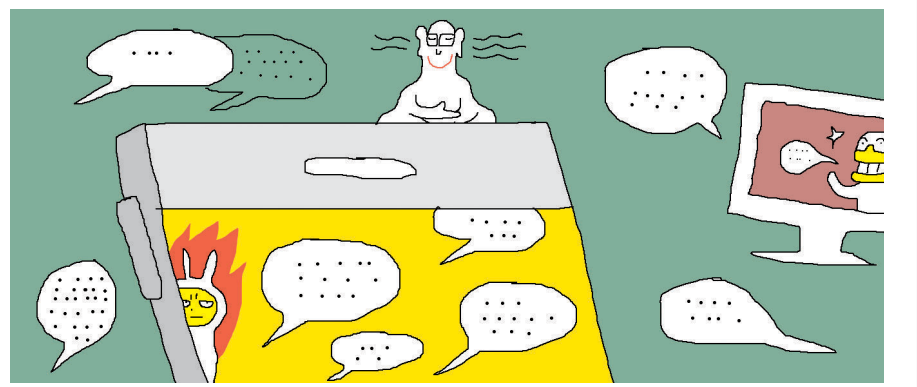
불교방송 TV프로그램을 하나 하기로 PD와 가벼운 마음으로 말뚱을 지었는데 방송 시작을 단 두 달 남겨놓고 연락이 왔다.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일단 먼저 교재를 만들고 나머지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다. 그때부터 45일간의 극락여행이 시작되었다.

눈 뜨면 극락을 생각하며 글 쓰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잘 때까지 극락에 관한 문헌들을 읽고 사유하며 글을 썼다. 오매불망 극락만을 생각하며 탄생한 교재가 바로 <불교인문학 극락추천서>다. 2015년 7월 4일 BBS 불교인문학 강의 녹화가 마무리되었다. 강의 전반부에서는 불교인문학의 개념들을 살펴보고 불교가 얼마나 훌륭하고 수승한지에 대한 끝없는 자랑이 이어졌고, 후반부에서

풀 수 있다. 그래서 스님들이 100일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극락세계에서는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가 붓다의 설법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설법을 들으면 깨달음이 생겨 큰 환희심을 느낄 수 있다. 붓다의 담마의 소리로 장엄된 세계가 극락인데, 지금 우리 삶도 이런 담마의 소리들로 장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 끝에 현대인들의 필수품이 된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메시지, 카카오톡, 전화벨소리, 알람 등 일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를 “나무아미타불” 염불소리로 바꾸는 것이다. 눈을 뜰 때 아미타불의 일람으로 기뻐하며 눈을 뜨고, 메시지가 도착했을 때 나



그림·박구원

는 그러한 불교 중에서도 극락세계라고 하는 아미타부처님의 정토가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지에 대해서 침을 튀겨가며 찬탄하고 강조했다.

강의 후반부 내내 공부하는 대중들과 입을 모아 합창한 문장이 하나 있다.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오매불망, 나무아미타불!”

죽음의 염라왕이 쫓아오는 그 순간,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두려움에 벌벌 떤다면 나무아미타불을 외치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깜짝 놀란 순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엄마야!”를 외치듯 입에 나무아미타불이 습관처럼 붙어 있다면 입종 사이에 나무아미타불을 외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닐 것이다.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는 뇌의 기저핵이라는 부분이 습관 고리가 형성되는 과정을 다양한 실험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21일 동안 원하는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66일이 지나면 안정되기 시작하며, 100일을 반복하면 그 습관은 완성된다고 한다. 훌륭한 선승

무아미타불을 되뇌는. 소리를 바꾸는 순간 스마트폰은 더 이상 기계가 아니라 극락조의 아름다운 염불이 된다.

또한 혼자서 익히기 어려운 습관을 대중의 힘으로 익힐 수 있는 방법도 스마트폰 속에 있다. 행복문화연구소에서는 염불습관을 들이고 싶어 하는 대중들을 위해 카카오톡 염불 단체방을 만들고, 하루

6번 정해진 시간에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실천한다. 한번에 걸리는 시간은 30초, 6번이면 3분이다. 하루 3분 투자해서 100일의 시간이 지나면 자신도 모르게 나무아미타불을 중얼거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불자라면 누구나 극락을 꿈꾸는 시에 나무아미타불을 외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닐 것이다.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는 뇌의 기저핵이라는 부분이 습관 고리가 형성되는 과정을 다양한 실험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21일 동안 원하는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66일이 지나면 안정되기 시작하며, 100일을 반복하면 그 습관은 완성된다고 한다. 훌륭한 선승

습관 하나를 몸에 익히는데 고작 100일의 시간이 걸릴 뿐이다. 이러한 선승 몇 가지만 삶에 이식하면 우리는 인생을 바



원님 스님(행복문화연구소 소장)

My friend MF30-12T 14 박스팬 선풍기

특별하는 바깥에는 무더위... 이런 마이프렌드 선풍기와 함께 시원한 여름을...!!

국내 유일 14인치 마이프렌드 박스팬 선풍기!

마이프렌드 정품 32,000원

상쾌하고 시원한 바닷바람을 실내 공간으로... Electric Fan 14인치 리모컨식 선풍기 MF-1414SR

무료배송, 정품확인 완료 73,000원

폭풍을 사냥하는 파란 MF-3000TS

강력한 터보팬동작, 무료배송 84,000원

선풍기 무료배송 당일배송 및 안전배송

마이프렌드 정품인증 완료

박스팬 선풍기 32,000원
스탠드 선풍기(리모컨포함) 73,000원
터보팬 선풍기 84,000원

입금계좌 동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문의전화 02)879-2007

JJUN Heating System Module

“**쫐**” 난방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스님, 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특허청 KIBO 기술보증기금 인증벤처기업

특허등록(특허제 10-1267515호) ISO 90001:2008 인증업체 ISO 14001:2004 인증업체

01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02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03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04 D.I.Y 시공 가능
05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설치 장소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 시공 대상 : 사찰 및 임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www.jjunheating.co.kr

지역 대리점

서울 : 010-5097-8291
평창 : 010-6433-8612
진주 : 010-3583-7139
익산 : 010-6610-2337

수원 : 010-5211-7260
양산 : 010-6294-6126
울산 : 010-4597-5577
여수 : 010-3612-7784

남양주 : 010-9183-9729
김천 : 010-9091-4583
세종 : 010-6890-0365
고성 : 010-4578-0961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 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정안로 61(영화동)